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 1908년 『대한매일신보』, 『여자기념』, 『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홍인숙*

—<차례>—

1. 여성들의 글쓰기와 ‘여성독자투고’
2. 근대계몽기 여성독자투고의 양상
3. ‘여성독자투고’의 내용과 여성들의 근대 경험의 반영
4.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특징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국문초록>

조선 후기 소설의 주요 향유층으로 지목되었던 여성독자들의 독서 행위는 ‘허황된 것’을 읽는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취향’이라는 편견의 시선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의 여성독자들은 ‘허탄한 이야기’인 소설이 아니라 ‘유용한 지식’을 전해주는 ‘신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근대적 지식의 보편성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근대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독자투고를 통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글은 여성 글쓰기가 특별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 1908년 신문과 잡지에 나타나는 여성 글쓰기를 살펴보고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볼 대상은 『대한매일신보』, 『여자기념』, 『자선부인회잡지』에 실린 장문의 개인 투고문들로, 여성으로서 경험한 근대 체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여성 글쓰기의 내용은 크게 근대적 여성교육의 의미에 대한 것과 전통적인 성별 위계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성 지배담론이 여성교육의 효용을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모성’의 의미로 국한시켰던 것에 비해,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여성들은 여성교육의 의미를 여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것으로 ‘재규정’하고 여성교육의 효과를 온전히 전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모성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여성의 교육을 한정적으로 지지하며, 지배담론의 여성교육의 의미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했다.

전통적인 성별 위계에 대한 내용 역시 두 가지의 상이한 입장이 동시에 드러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에서는 근대적 국민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여자도 국민’임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존재를 격하시키는 전통 담론을 ‘정면 거부’하고 성별 위계에 대한 저항적인 언표를 격렬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차별적인 성별 질서에 대한 일말의 저항감 속에서도 자신의 말을 재빨리 순치시키거나, 여전히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발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의 여성 글쓰기는 근대계몽기 전반의 공적 발화보다 더 딱딱하고 직설적인 수사를 보여준다. 여성의 공적 언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 자신의 말에 대한 권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여성들은 ‘여성 글쓰기’에 대한 편견, 즉 ‘지분기와 감상성’을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거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1908년에 특별히 두드러졌던 이들의 목소리는 1906년과 1907년에 있었던 여학교 설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집단적인 자아 표출 경험의 맥락에서 발전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발언 속에서 여성들은 근대 체험과 근대적 인식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이는 남성 지배담론에 포획되지 않고 여성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며, 여성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주제어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 여성주체, 여성교육, 성별 위계, 재규정, 순응

1. 여성들의 글쓰기와 ‘여성독자투고’

조선 후기 소설의 유행과 세책가의 번성 뒤에는 ‘여성독자’가 있다. 그들은 19세기 후반 더 싸고 효과적인 생산기술 보급과 장편가문소설의 유

행을 비롯한 대중소설의 확대 분위기 속에서 '통속적인 소설'을 소비하는 주요한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선후기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불온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소설의 주요 향유층으로 지목된 여성들의 독서행위는 그만큼 평가절하 되는 것이었다. 즉 '여성독자'는 허황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책이나 읽으며 '텍스트와 인생을 구별 못하는 순진한 독자의 원형'으로 여겨졌다. 여성들의 설익은 독서는 인생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김동인의 <김연실전>에서 김연실이 정조 관념 회미한 여자가 된 근본에는 그러한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독서'가 있다는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¹⁾ 말하자면 '여성 독자'라는 존재는 텍스트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들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감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독자투고'는 어쩌면 이러한 여성독자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들일지 모른다. 초기의 '여성독자투고'에는 신문의 유익함에 대한 감사 소감이 종종 나타났다. '신문 오기를 어진 스승과 착한 벗 기다리듯 하며 어린 쏭의 식견도 넓니'고 있다거나, '날마다 신문을 기다려 한 번 일그미 흥금이 상활 흘 쏜더러 세상 소식을 더강 녕냥ㅎ깃다'거나, '고담책의 허탄함을 가히 찌 닷갬다'²⁾고 하는 투고자들의 말에는 다른 독서물이 아닌 '신문'을 읽는다는 자부심과 지적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소설'에서 '신문'으로 독서 대상

1) 펠스키는 플로베르의 <보봐리 부인>에서 멜로드라마적인 대중소설을 선호하는 독서취향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는 '엠마'를 이렇게 분석한다. '독서하는 여성의 원형으로서의 엠마 보봐리의 표상의 근거에 가로놓인 것은 ... 초월에 대한 동경과 세속적인 비속함의 모순적인 혼합이었다.'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 심진경 옮김, 거름, 1999. 134~140면 ; 천정환은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예로 들면서 1920년대 남성작가들이 여성들의 강렬한 독서환각을 조롱거리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4. 352~353면.

2) 『제국신문』 1900. 2. 5 ; 『대한일보』 1904. 7. 6 ; 『제국신문』 1907. 4. 3

을 옮겨간 ‘여성독자’는 더 이상 ‘과도하게 감상적이고 순진한 취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근대계몽기에도 여전히 소설이 가장 대중적인 오락물이었고 소설 소비층의 대다수는 여성이었지만, 신문이라는 독서물을 택한 ‘여성독자’들은 거기서 소설이 주지 못하는 ‘객관적 정보’와 ‘유용함과 실용성’라는 가치를 발견했고 근대적 지식의 보편성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문은 소설에 비해 ‘독자’에서 ‘글쓰기 주체’로의 이동이 쉬운 매체였다. 이들은 독자투고를 통해 근대의 글쓰기 주체로 등장하면서 여성으로서 경험한 자신의 근대 체험과 새로운 인식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시기 신문의 ‘독자투고란’은 ‘동마다 넓은 집을 신문종람소’로 정하고 ‘유식한 한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낭독’³⁾하는 공동체적 독서 문화 속에서, 문맹의 대다수 독자와 구별되는 일부 지적인 독자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장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민원을 호소하는 성격으로 출발한 독자투고는 점차 발전적 양상을 보이면서, 문단 제도의 성립 이전 근대 조선의 대중의 글쓰기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글쓰기’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들 일부 독자들은 문자 해독력은 물론 정확한 정세 파악 능력, 시대적 인식,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구별되는 개인의 확고한 입장과 견해, 글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이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와 여성잡지 『여자기남』, 『자선부인회잡지』를 중심으로 여성독자투고를 포함한 여성 글쓰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별히 1908년의 여성 글쓰기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1907년 초 국채보상운동을 계기로 많은 부인회들이 조직되고 각 부인회마다 취지문을 발표했던 상황들이 1908년의 여성들의 공적 발언을 고무했다고

3) 김유탁, 「신문광포의견서」, 『서우』 9호, 1907.8.

보기 때문이다.⁴⁾ 국채보상운동에서 부인회들의 취지문 발표를 통해 여성의 공적 발언에 대한 분위기가 다분히 긍정적인 것으로 격려 받는 고양된 맥락 속에서, 다음 해인 1908년의 매체에 여성들의 글쓰기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물론 1908년의 여성 글쓰기의 성황은 특수한 것으로, 그 맥락은 다음 해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1910년의 한일합방의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한동안 그 흔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때까지 여성담론을 주도해오던 『제국신문』의 임원진이 1907년 10월에 교체된 이후⁵⁾, 1908년부터 여성독자들의 투고문은 『대한매일신보』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 또한 1908년에 창간된 두 종류의 여성잡지, 『女子指南』과 『자선부인회잡지』는 주로 여성 필자들의 글을 담고 있었다. 1906년에 최초의 여성잡지로 창간된 『가명잡지』의 모든 필자가 남성이며 주로 여성들을 훈육·계도하는 담론이 펼쳐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두 잡지의 주요 필진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초기 신문과 잡지의 투고자들은 근대 매체의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일

4) 1908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4개월간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부인회는 10여 개에 달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減餐會', '汲水報償會', '積盛會', '佩物廢止會', '脫環會' 등으로, 모임의 이름에 국채를 갚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식을 천명하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목표를 밝히는 취지문을 신문에 투고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당시 이들 부인회의 이름으로 투고된 취지문들은 근대계몽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글쓰기의 한 영역으로 별도의 논의를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 '1907년 9월 20일자로 폐간을 선언하고 발간을 중지했다가 10월 3일자로 속간하면서 신문사를 鄭雲復이 인수하였다. 10년 가깝게 제국신문사를 운영해 온 이종일은 이때 신문사와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다. …… 정운복은 일본과 영국에서 수학한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각 정치 사회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지만, 그 정치적 성향은 친일적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인들은 그를 친일파로 인식하면서도 입신출세주의자로 파악하고 있었다.' 최기영, 『대한제국기 신문 연구』, 일조각, 1991. 43~44면.

방적인 텍스트의 수용자가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자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여성독자투고를 비롯한 여성 글쓰기는 근대 초 구 여성들의 드물지만 생생한 목소리에 접근하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이들의 글쓰기는 근대계몽기 지배담론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지만, 자신의 주위에 존재하는 많은 입장들 중에서 특정 입장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거기서 배제되기도 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은 1908년의 매체에 실린 여성 글쓰기를 통해 근대계몽기의 여성들이 어떻게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의미화하고 정체성을 구성해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대계몽기 여성독자투고의 양상

‘독자투고’란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신문학 및 사학계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문학 쪽에서의 연구는 최근 들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⁶⁾ 이 가운데 이형대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는 여성 작가의 계몽 가사와 시조를 통해 여성이 근대 주체로 탄생되는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정여울은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의 독자투고의 특징을 각각 ‘민원의 창구’, ‘두드러진 계몽성과 정론성’, ‘원고 자체의 흥미와 문학적 완결성’으로 분석하였다. 이경하는 1898년부터 1907년까지 『제

6) 근대계몽기 신문 독자에 대한 신문학 및 역사학계의 연구사는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2004.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문학 쪽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독자투고란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신문매체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10집, 2001. ; 이경하, 위 논문. ; 정여울, 「개화기 신문 독자투고란 연구」, 『문학사상』 제34권 제7호, 통권 393호, 2005.7.

국신문』의 여성독자투고를 중심으로, 이 당시 여성들이 어떻게 근대 계몽 담론을 수용하고 재생산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근대계몽기 신문 중 여성독자투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매체는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였다. 이경하에 따르면 1898년부터 1907년까지 『제국신문』의 여성독자투고의 수는 총 20여 편에 달하며 대개 논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글들로, 처첩제, 과부 개가, 여성 교육, 여성의 사회 참여 등 당시의 주요한 계몽 담론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⁷⁾ 그런데 1908년부터 여성독자투고의 주축은 『제국신문』에서 『대한매일신보』 쪽으로 옮겨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1907년 10월 이후 『제국신문』의 재정난으로 임원진이 교체되면서 생겨난 변모와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 활성화 때문이었다.

애국지사이자 여성 계몽의 선각자였던 이종일이 10년간 이끌던 『제국신문』을 인수한 정운복은 재정난에 못 이겨 이등박문에게 『제국신문』을 통감부의 기관지로 만들자는 제의를 하거나 합방청원의 배후에 깊이 관여하는 친일적 성향의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성향은 『제국신문』의 독자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때는 이미 1907년 5월 30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이 안정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국문 신문의 대표주자로 애국계몽담론을 주도하고 있었던 때였다. 순국문 신문인 『제국신문』의 주요 독자들이었던 여성들과 하층민들은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으며⁸⁾ 실제 1908년부터의 여성 관련 기

7) 이경하는 남성 지식인들이 의도한 여성에 대한 계몽담론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 여성들이 계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계몽담론을 수용하고 창출하는 주체이기도 했음을 주목했다. 그는 '엇던 유지각한 시골 부인', '자칭 대한 광녀', '어느 가궁한 여노인', '평안도 여노인', '안연희', '리금사', '노병선 아내' 등의 필자들이 남긴 독자투고란을 살펴보면 이들의 글이 '계몽담론의 주제와 결론을 공유하면서도 어떤 작은 차이들을 변주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하, 앞의 논문, 2004.

사들 역시 『제국신문』보다 『대한매일신보』에서 많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창간된 신문계의 후발 주자였지만 사장인 베텔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상대적인 언론의 자유로 인해 1910년 폐간될 때까지 과감한 애국계몽담론을 펼쳤다.⁹⁾ 정여울은 『대한매일신보』가 ‘비엘리트일수록, 여성일수록, 하층민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계몽담론의 수사학적 효과가 증폭된다고 보고 투고를 전략적으로 환영했다’고 하면서 ‘정론적이고 계몽적인’ 독자투고가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의 일반독자투고가 ‘탄핵과 저주까지 동원하며 다양한 수사학적 실험’을 망라하며 ‘예리한 풍자와 처절한 파토스’를 주된 정서로 한다는 지적¹⁰⁾은, 여성독자투고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여성독자투고는 총 18편 정도 되는데, 의견금을 보내며 기부의 변을 밝히는 짧은 글이나 국채보상운동 등 부인단체의 취지서, 계몽적 시조를 제외한 ‘개인 투고자의 투고문’은 5편이다. 국한문체에 가까운 전통적인 ‘논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글들에서 파격적인 근대적 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들의 글쓰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자료군인 여성잡지는

8) 최기영, 앞의 책, 58~63면 ; 『대한매일신보』의 발행 부수는 국문판 이전의 4천 부에서 국문판 발행 이후인 1908년 5월 시점에서 1만 부 이상으로 확인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이 당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읽히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이광린·유재천·김학동, 『大韓每日申報 刊行에 대한 一考察』, 『大韓每日申報 研究』,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연구논집 제16집, 서강대출판부, 1986, 21면.

9) 베텔은 치외법권을 가진 외국인이었으므로 그가 편집·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한 어떤 기사를 써도 1907년 7월에 제정된 신문지법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한 그를 방패 삼아 양기탁 등 한국인 주필들은 다른 어느 신문보다 격렬한 애국담론을 펼칠 수 있었다. 이광린·유재천·김학동, 위의 책, 16~17면.

10) 정여울, 앞의 논문, 180~181면.

1900년대에 총 세 종류가 발간되었다. 1906년 6월 신민회 지회 상동청년회에서 창간한 『가당잡지』, 1908년 여자교육회 회지로 발간된 『女子指南』, 또 1908년 자선부인회의 회지로 발간된 『자선부인회잡지』가 그것이다.¹¹⁾ 이 중 남성 필자들의 글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당잡지』를 제외하고, 『女子指南』에서 21편, 『자선부인회잡지』에서 9편의 여성 글쓰기를 각각 볼 수 있다.

『女子指南』에 실려 있는 21편의 글 중 12편은 '여자교육회'의 부인 회원의 글이며, 9편은 보학원의 여학도들이 쓴 글이다. 부인 회원들의 글은 '축사', '의견서'에서부터 4.4조의 단행 가사('권학가'), 개인의 계몽적 견해를 표방한 글('녀조의 자유', '학설', '교육론')까지 비교적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여학도들의 글은 '국가의 정신은 남녀교육에 지함'이라는 주어진 글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어진 짧은 논설문이다. 『자선부인회잡지』에 실린 여성 글쓰기는 이 부인회의 총무, 평의원, 회장 등 임원진들이 자선, 교육 등에 대한 개인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볼 자료는 『대한매일신보』와 『女子指南』, 『자선부

11) 『가당잡지』(1906.6~1907.2, 1907.8~1908.7; 편집인 신채호, 또는 유일선)는 1907년 중도 정간되었던 5개월 분을 제외하고 1차와 2차에 걸쳐 총 14호가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3, 4, 5, 7호뿐이다. 현존하는 『가당잡지』 4호분의 모든 글은 양기탁, 주시경, 김병현, 유일선, 전덕기, 안친강 등 남성 지식인들의 여성계몽 및 교육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이 직접 쓴 글은 발견되지 않는다. 『女子指南』(1908.4~1908.6(?); 편집 발행인 윤치오)은 3호까지 간행되었다고 하나 현재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창간호 뿐이다. 2호는 대구 지방의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공개되지 않았고 3호는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선부인회잡지』(1908.8 편집 발행인 최찬식)은 창간호로 중단되었다. 이상의 자료 상황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韓國女性關係資料集-韓末女性誌』, 이대출판부, 1981에 소개되어 있으며, 잡지의 원문 역시 이 책에 영인되어 있다. 이화형 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 9권 여성지 총목차, 국학자료원, 2004에서는 근대 여성지에 실려 있는 기사 제목과 글쓴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회잡지』에 실려 있는 여성독자투고문과 여성 글쓰기이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1908년에 집중적으로 쓰여진 것들이며¹²⁾ 대개 안정된 논설문의 구성을 따라 쓰여진 장문의 투고문들로, 그 속에는 여성으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근대의 어떤 국면에 대한 입장과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들의 글쓰기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근대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여성독자투고’의 내용과 여성들의 근대 경험의 반영

(1) 근대적 여성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규정’과 ‘순응’

1900년대 신문 매체에서 가장 강조된 화두는 ‘문명과 개화’이며 이를 구현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단연 ‘교육과 학문’이었다.¹³⁾ 1898년 찬양회의 자율적이고 조직적인 여학교 설립 운동으로 근대 조선의 여성담론이 시작되어 1900년대 내내 여성담론의 핵심에 언제나 근대적인 여성교육에 대한 논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준다.¹⁴⁾ 그러나 여성의 근대 교육에 대한 지배담론의 입장은 다음 예문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뚜렷이 ‘모성과 가족’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나라에 급선무는 인지를 교육함인데 다만 남즈만 교육할 거시 아니라 너

12)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글 중 1908년의 시한을 넘긴 자료는 ‘안악 정나훤’의 『대한 매일신보』 1909년 2월 20일자 투고문이다.

13) 최기숙, 「교육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제12집, 2004.

14) 제1기(1898~1903)와 제2기(1906~1910)에 걸친 여학교 설립 운동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 여성이 조선 여성들을 위해 만든 근대적인 제도교육기관으로서의 ‘여학교’들이 세워졌고, 다수의 여성 설립자 및 기부자 등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894.

인을 더욱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할 터이니 잊지코야 그런고 하니 학문잇는 녀인은 으희를 나아서 양육할 때에 으희의게 해로울 음식을 도모지 먹이지 안니흔즉 (생략) 즈식의게는 어미가 아비된 이보다 더 관계가 잇는 거시아모 아히던지 칠팔 세 되기 전에는 어미가 흥상 다리고 잇서서 잠시라도 슬하에 써나지 아니흔고로 어렸을 때에 교육흔는 칙망은 다 어미게 잇는 지라 그런즉 녀인 중에 무론 누구던지 당초에 자기가 교육을 맞지 못헸엇거던 잊지 능히 즈식을 잘 가르칠 슈 잇스리오 (생략) 계집으희들을 녀학교에 보니여 각식 학문을 잘 가르치면 즈식을 양육흔는 리치도 또한 그 속에 잇거늘 우리나라에는 아직 녀학교가 업는고로 녀인들이 즈식을 양육헸기에 몽미코야 낭패가 만히 잇시니 잊지 큰 흠결이 아니리오. (생략)¹⁵⁾

위 예문에서 여성교육이 시급한 이유는 학문 있는 여자가 '으희의게 해로울 음식을 먹이지 안니'하기 때문이며, '칠팔 세 되기 전 어렸을 때 교육흔는 칙망은 다 어미게 잇'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 어머니 될 여성들의 교육이 시급하다는 '교육하는 모성' 담론은 지배담론이 여성교육의 목표와 한계를 미리 확정해주는 것이었다. 조선의 민족담론이 허용할 수 있는 여성교육의 효과는 민족 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족 내부로 환원되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¹⁶⁾

그러나 찬양회의 「여권통문」 이후 일부 여성들의 글쓰기에서 이러한 의미화는 때로 무시되거나 다른 의미로 재규정되기도 했다. 여자들에게 근대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력으로 녀편네를 압제허라는 사나희들이 한갓 넷글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나희의게 일호도 압제를 맞지 아니'하려면 '녀으들을 녀학교에 보니여 각항 지조를 비호'

15) 「급여인교육」, 『제국신문』, 1901.1.22.

16) 홍인숙, 「여학교 주변의 여자들-신문·잡지에 나타난 제도교육 최초 형성기(1898~1910)를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화회 하계워크숍 발표문, 2006.7.

게 해야 한다는 찬양회의 주장¹⁷⁾은 ‘교육하는 모성’ 담론 안으로 결코 포획되지 않으며, 여성의 독립과 자유에 방점을 찍는 것이었다.

1908년 8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려있는 ‘女士 金松哉’의 투고문은 찬양회 이후 제2기 여학교 설립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근대적인 여성 제도교육이 현실화되고 활발하게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감격을 보여준다. 그는 ‘閨中에 蟄伏하였던 女子가 男子와 同等權’을 가지고 ‘同等學文, 同等知識, 同等技藝, 同等事業의 希望’을 가지게 되었으니 여성의 ‘揚名一國과 流芳百世’를 바랄 수 있으며 ‘大韓帝國이 第一文明國’ 되기도 바랄 수 있다며 ‘여학교와 여자사회의 발달’을 치하하였다.¹⁸⁾

그는 특히 여자들의 지적 성취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통적인 남성들의 공적 성공의 지표어인 ‘양명’과 ‘유방백세’, 즉 ‘이름을 떨치고 후세에 길이 명예를 남기는 일’로 표현하였다. ‘이름을 떨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적인 자아 실현의 특권을 나타내는 말이었지만 이는 뚜렷한 성별적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新學問과 新知識은 全然不知’하며 ‘年期가 不知中

17) 「여권통문」, 『황성신문』, 1898.9.8

18) ‘挽近文明發達한 時代를 當하야 風氣가 大變하니 閨中에 蟄伏하였던 女子가 男子와 同等權이 되야 同等學文과 同等知識과 同等技藝와 同等事業의 希望을 취할 뿐 不啻라 女子學校와 女子社會가 振興發達하니 新世界의 開明한 新知識으로 改革舊染하야 忠君愛國하는 思想이며 活潑한 志氣와 溫柔한 心과 慈善한 精神으로 文明進歩하야 世界夫人界에 同等地位를 保有하기로 直相勉勵하니 壯哉라 夫人이여. 揚名一國과 流芳百世를 期於必得이오 貳千萬人 壹心團體로 維新事業을 成就하야 國權回復한 義務도 老少를 勿論하고 學文과 教育을 熱心히 修業하야 一般事業을 男女同等하리니 寂寂閨門之內에 蟄伏하는 夫人의 名譽와 事業이 六大洲에 喧動하고 大韓帝國이 第一文明國되기를 可期하리니 本人은 開進之道와 文明之氣와 簡單經濟와 女學校와 夫人社會를 四千年歷史에 未聞하고 年期가 不知中 四句이 已過하니 新學問과 新知識은 全然不知하나 然이나 愛國事業과 公共義務는 閨中所見으로도 希望이 有하야 卒筆短文으로 一般夫人界에 寄付하노라.’ 金松哉, 「我韓婦人界新思潮」, 『대한매일신보』, 1908.8.1

四旬이 已過'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40이 넘는 구식 부인 '김송재'는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운 여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근대적 지식의 획득이 여성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성 자신의 더 나은 자아 실현에 있다고 생각했다.

1908년 3월 20일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다음 여성독자투고 역시, 여성교육의 의미를 온전히 여성이 전유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於是乎新鮮한 空氣도 浴하여 男子와 同히 教育을 受어야 本是 靈慧한 稟質에 新知識을 發達하여 忠君愛國하는 思想이 日로 發生하며 人을 依賴하는 心은 二千萬人心中에 有한 三千丈無名業火로 皆燒却하고 愛國之性과 自由之心은 腦髓에 充滿하고 同胞를 愛함과 患難을 相救함을 惟恐不及하며 同聲相應하고 同氣相求하며 萬口同聲하고 一心團體로 文明進步하여 維新事業을 成就하는 日이 不遠한지라. 壯하도다. 我大韓帝國 同胞姊妹여. 雖然女子라도 揚名富貴도 可期오 流芳百世도 可期하리니 益益두수 精神하여 外客이 多한 此世上에 他人의 弊端을 伺하는 眼은 電갓치 閃閃하네대 鸚鵡猩猩갓다난 非笑를 幸히 取치 마시오. 玉不磨하면 溫潤키 不能하고 金不鍊하면 精剛키 不能하다 하니 玉을 十回 琢磨하고 金을 百遍鍊鍛하여 男子와 同等되야 維新事業을 成就하여 國權回復하기를 二千萬人的 四千萬肩上面에 擔任한 줄로 如하시오. 如我愚昧人生은 陋巷에 蟄伏하여 同胞中 棄物이라 我敬愛한 同胞姊妹의 成功함을 拭目傾耳하여 待하노이다.¹⁹⁾

‘漢南女士’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 여성은 전아한 한문 문장의 관습에 상당히 익숙했던 상층 여성으로 보인다. 그는 「勸告婦人界」라는 제목의 위 투고문의 서두에서 열강의 침략적인 제국주의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정세를 정확히 읽고 있으며, 조선 왕조의 개창자인 ‘태조’를 역사적 기원으로

19) 漢南女士, 「勸告婦人界」, 『대한매일신보』, 1908.3.20

로 호출하면서 국가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것을 역설했다.²⁰⁾ 그런데 그렇듯 위급한 나라 상황을 구할 수 있는 방책으로 ‘한남여사’가 제시한 것은 여성의 지식 획득과 사회적 등용이었다. 그는 조선의 여성들 중에 ‘태임·태사, 맹모, 맹광, 반소’ 같은 여성 인재가 ‘車載斗量’하게 많았으나 ‘女子는 居內야 號令이 不出門庭’해야 한다는 규범 때문에 ‘男子보다 十倍나 超越호는 婦人’들이 그냥 묻혀갔음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 ‘鎖한 鑰를 折호고 關호 門을 打호야 一身의 束縛한 것을 解放’되었으니 여성들의 대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여성교육의 의미를 사뭇 ‘여성주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의 미화한다. 그는 ‘本是 靈慧한 稟質’을 가진 여성들이 ‘新知識’을 배우면 ‘同胞를 愛하고 患難을 相求’하는 것 같은 선도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文明進歩’와 ‘維新事業’에도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한남여사’는 앞 예문의 투고자 김송재와 같이 여자들도 성공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揚名富貴), 후세까지 이름을 남길 수 있다(流芳百世)’는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대한제국 동포자매’들에게 과감히 가

20) 天開於子호야 自混沌以後로 今爲申正이라 如日西斜호니 乾坤이 擾攘호고 四海가 沸鬱하야 生存競爭凌強制弱호는 此時代에 世界上 列邦이 無彼無此호 其騷亂을 受호는 中에 惟獨 我大韓帝國 二千萬生靈이 最悲慘호는 境에 至호야 同胞로 하야금 心痛骨戰케 하노도다. 噫라 此三千里江山이 誰家之疆土호 我太祖高皇帝의 서 草茅에서 起호사 三尺劍을 提호시고 三韓을 統一호사 化家爲國호신 萬萬歲之 天府金湯이라 聖子神孫이 繼繼承承호스 衣冠文物과 禮義法道를 比肩호 國이 無호야 世界가 稱道호던 바오 三千里錦繡江山에 山明水麗호고 海陸에 產出호는 萬般物種이 盡善盡美하야 天下에 第一이오 山川의 靈秀호는 氣脈으로 人物에 盛호도 天下에 第一이오 往古來今에 賢人君子와 龍鳳比干호는 忠臣烈士와 程朱호는 道學家와 三蘇호는 文章과 韓彭호는 英雄豪傑이 指不勝屈이오 至於女子호야도 任스호는 閨範과 孟母호는 母儀와 徐母호는 烈俠와 黃氏호는 才能과 孟光호는 婦德과 班昭호는 文章을 車載斗量이라도 不可勝數호는 女子는 居內호야 號令이 不出門庭이란 六字로 行狀을 作호야 一平生 事業은 針線紡績과 酒食是議뿐인 故로 男子보다 十倍나 超越호는 婦人이라도 草木호치 寂寂埋沒호는 歎惜호더니

지라고 권유한다. 배운 여성들이 그렇게 사회적 명예를 얻고 성공과 출세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他人의 麁端을 伺 候'는' 번개 같은 눈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이렇듯 '한남여사'가 바라는 후배 여성들의 지식 획득의 목표는 '눈을 씻고 귀를 기울이며(拭目傾耳)' 기다릴 만한 '同胞姊妹의 사회적 成功'이었다.

하늘도는 오직 공변될 뿐이오 사사는 업도다 지구는 돌고 세월은 가기를 잠시도 쉬지 아니함으로 옛 시디는 어더로 간는지 희도 말하지 아니하고 달도 말하지 아니하야 찾고져 하야도 종녀 차질수 업스며 다만 벽우에 걸린 자명종 초침 소리는 찌각찌각 하야 이 이십세기의 현상을 보흔 듯하니 엇지 힘쓰지 아니할게며 엇지 삼가지 아니할게리오 이 시대는 곳 생존 경쟁의 활동 무디라 우리도 그와 갓치 활동치 아니하면 결국에는 남을 구조함은 고사하고 우리 일반 녀즈는 남의 자선을 업는 경우를 면치 못하야 이전 수치를 써서 바람은 고사하고 장리 녀즈로 하야곰 또 비창흔 지경에 빠지게 할지니 우리 녀즈는 더욱더욱 힘쓸지어다 이 조흔 시기를 일치 말고 우리가 만일 이 시기를 랑비홀진디 저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혼번 도라가면 다시 도라오지 못홀지라²¹⁾

『자선부인회잡지』 창간호(1908.8)에 실린 차천경의 「정업는것도 저일월이오 반가온것도 저일월이라」의 일부분이다.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감회를 나타낼 것처럼 '일월'이라는 고전적인 단어를 내세워 제목으로 삼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계몽적인 자기 다짐과 독자들에게 대한 당부에 있다.

21) 차천경, 「정업는것도저일월이오반가온것도저일월이라」, 『자선부인회잡지』 제일호, 1908. 8

그는 ‘사사가 없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전과 공전이라는 근대 과학 지식에 의한 시간 관념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 직선적인 근대적 시간 관념을 표상하는 것은 ‘째각째각’하는 ‘벽우에 걸린 자명종 초침 소리’이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이십세기’의 ‘일반 녀즈’들의 활동을 자극하는 소리이다. ‘차천경’은 ‘(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치 아니하면 이전 수치를 써서 바림은 고사하고 장리 녀즈로 해야곰 또 비창흔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녀가 강조하는 대로, ‘지금 이 시간을 잘 써야 하는 이유’가 ‘장리 녀즈’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근대적 여성주체가 자신의 활동의 의미를 ‘다른 여성의 존재 조건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그러나 근대 여성교육에 대한 여성독자투고 전체가 이렇게 지배담론의 규정성에 대항하는 의미화만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다.

然則 樂莫樂於教育이오 悲莫悲於非教育일시 教育의 先務와 遠因을 深思默量하니 家庭教育이 先務오 女子教育이 遠因이라. 女子는 國民된 者の 어머니될 사롭이오 家庭教育에 主張될 사롭인즉 不可不 教育이 發達된 後에야 其子로 해야곰 文明흔 國民의 知識을 引導할 模範이 될지니 엇지 女子教育이 急先務가 아니리오. 問乎天하며 詢乎人이라도 女子教育이 急先務라 할 것은 女子教育으로 有해야 多少新英傑과 國家棟樑之 材를 鑄成할지라 謂할지니(생략)²²⁾

家庭에 한가지 비흔 빈 업는 兒童을 高尚흔 道德으로 培養하며 諸般 普通知識으로 教授흔들 以上에 記흔 境遇를 엇지 免히리오. 故로 家家에 家庭教育을 設히되 其教師될 이는 婦人들인 故로 各處에 女學校도 竝立하

22) 張敬主, 「女子教育論」, 『대한매일신보』, 1908.8.11

는 所以라. 如此則 女子教育이 즉 師範教育인 줄노 確實히 知히나이다.
 남에 母가 되며 家庭에 先生될 우리 女學徒들아 이 뜻을 三復히여 到底히
 힘을 쓰시며 아직 入學치 못한 兄弟는 히로 必히 入學히여 家庭에 先生될
 資格 닥그시기를 千萬 바라옵나이다.²³⁾

1908년 8월 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위 예문은 ‘女士 장경주’의 투고문이다. ‘여자는 國民된 者의 어머니될 사람’이며 ‘家庭教育에 主張될 사람’이라는 위 예문은 근대적인 여성교육의 의의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민족주의로 포섭하는 전형적인 언술을 보여준다. 1909년 2월 20일 같은 신문에 투고한 16세 여학생 ‘安岳 정나헬’도 아래 예문에서 ‘가정교육의 교사될 이가 부인이니, 여자교육은 곧 사범교육’이라고 하여 여성의 배움을 가정의 영역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이렇듯 근대계몽기 여성독자투고는 여학교라는 근대적 여성 제도교육 기관이 처음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지던 1900년대, 한편에서는 여성교육에 대한 근대적 체험을 여성의 입장에서 의미화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가부장적 민족 담론의 입장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본 ‘여사 김송재’, ‘한남여사’, ‘차천경’ 등의 여성투고자들은 여성의 근대적 지식 획득의 의미를 가족이나 모성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여성의 자아 실현, 공적 정체성의 성취, 다른 여성들과의 연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사 장경주’와 ‘안악 정나헬’과 같은 여성투고자들의 글은 여성교육의 의미를 가족과 민족의 내부로 흡수해 버리는 민족담론의 규정성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23) 鄭나헬, 「女子의 教育이 卽 師範教育이라」, 『대한매일신보』, 1909.2.20

(2) 전통적인 성별 위계에 대한 '정면 거부'와 '내적 갈등'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서 수많은 부인회를 결성하고 활동했던 경험은 여성들에게 '여자도 국민'이라는 의식을 확실히 각인하게 했다.²⁴⁾ 국채보상운동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조선부인들아, 국민 된 의무를 행하여 봅시다'라는 청구형 문장은 여성들에게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상 '국가나 정치와 같은 공적인 일에 대해 입을 열 수 있는 권리와 상통하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²⁵⁾ 여성들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경험한 집단적인 사회 참여의 기억은 그들 자신을 남자들과 동등한 '국민'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08년의 여성독자투고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별 위계에 대한 직설적인 거부의 표현들은 '나도 남자와 똑같은 국민이다'라는 개념을 자각하는 맥락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사람마다 심산호을 써에 남즈를 나오면 농장지경이라 호야 치하가 분분호고 녀즈를 나오면 농와지경이라 호야 도로여 불형이 역이오니 엇지호야 인성은 일반인더 남즈는 귀흔 구슬이라 호고 녀즈는 천흔 흑덩이라 호는 잇가 심산호기로 론지호면 남즈는 어렵고 녀즈난 쉬운지오 그러치도 안이 호고 녀즈는 이목구비가 남즈와 달나 례의렴치를 모로난가 이것은 다름안이라 녀즈라 호는 것은 일평상에 학문이 업서 남즈에 뒤치기호는 사람인더 그중 영리호고 절기호는 잇는 녀즈되야 남즈에 뒤를 만분지일이나 보와 주거니와 그러치 못흔 것은 도움기는 고사호고 도로혀 남즈에게 누를 찌치기만

24) '여성을 근대적 국민의 일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계몽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뚜렷한 계기를 이루는 것이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이다. 국채보상운동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해도 무방하지만, 여성들을 민족적 주체로 자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만하다. 그것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다채로운 층위에서 인표화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95면.

25) 이경하, 앞의 논문, 86~87면.

흐는고로 죽연 무용물로 지목하야 규중에 가두워 둔 것이니 그를 잊지 절통
타 하리오²⁶⁾

② 괴벽년터 곳은 풍속을 말하건더 산곡갓치 김흔 규방과 희슈갓치 김흔
중문 안에서 주야로 속절업시 세월을 다 보니며 가군만 바라고 굶던지 먹던
지 벗던지 입던지 전여 남편에게 의뢰하며 출입을 허량이면 지옥갓흔 교자
속에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평생을 다 지녀도 주의주식하는 방법을 못 비
오고 경제하는 방법을 못 비와스즉 이천만 동포 중에 녀즈도 반분즈이온더
반분즈가 자유를 일코 인격을 일코 주의주식을 모르고 주유로 출입도 못 하
고 제 발 제 손도 주유로 쓰지 못하엿스니 잊지 나라이 부국이 되리오²⁷⁾

『女子指南』에 실려 있는 투고문 ①은 ‘천흔 나히 룽십이라’고 한 ‘부인
최학암’의 「의견서」이다. 이 글은 ‘선조의셔 하지 못하던 스업을 일조에 한
다는 것이 외롭도 하고 방조하듯도 하느’ 여성들이 ‘스업을 하야보라’는 주
장을 담고 있다. 그는 ‘弄璋之慶’과 ‘弄瓦之慶’이 남녀를 ‘귀한 구슬’과 ‘천
한 흙덩이’로 차별하는 말이며, ‘영리하고 절기나 잇는 녀즈’ 정도 되어야
겨우 ‘남자에 만분지일’로 보이준다면 ‘여자라고 낱기가 쉬운지’ 반문한
다. ‘이목구비가 달’은 것도 아니고 ‘혜의렴치를 모로난’ 것도 아닌데, 여자
가 남자들의 ‘뒤치기하는 사름’이 된 것은 ‘학문’이 없기 때문일 뿐이라면
서, 최학암은 ‘잊지 녀즈라고 못홀일이 잇스오릿가’ 하는 말로 여자들의 사
회 활동을 권장한다.

투고문 ② 역시 『女子指南』에 실려있는 것으로, ‘부인 리강즈’의 글이
다. 여기서도 봉건적인 여성관은 여지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의 규방 생활을 ‘산곡갓치 김고 희슈갓치 김다’고 표현하고 외출할

26) 최학암, 「의견서」, 『女子指南』 第一卷 第一號, 1908.4

27) 리강즈, 「녀즈의 자유」, 『女子指南』 第一卷 第一號, 1908.4

때도 ‘지옥갓흔 교자’에 간혀있는 생활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는 이런 생활 때문에 여자들이 ‘가군만 바라고’ ‘즈의즈식흔 방법’, 즉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서,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자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성별 위계 및 남녀 차등에 대한 저항적 연표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남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선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다음은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3일자에 실린 ‘弄雲娘子’의 투고문이다.

日前에 本人이 京城에 觀光하기 爲하야 京仁鐵道 第一番列車에 到着하야 各處 學校를 次第로 閱訪하니 教育程度는 女子의 眼孔으로 猝測키 難하니 第一教育에 有志하다는 君子를 見흔즉 短髮이나 左右로 刮開하고 濃油로 塗으며 麥帽을 戴하고 洋鞋을 着하며 細足鏡이나 擡하얏스니 此가 果然 教育을 務흔는 者인가 抑或 藥開化者나 아닌가 此가 果然 文明開化의 先導者인가 抑或 挾雜人이나 아닌가 又或 無實의 虛名으로 他人效顰이나 흔는 者나 아닌가. 嗟乎 同胞姊妹兄弟여 諸君中에 眞實흔 教育家가 有乎아 無乎아 吾親壹見흔는 비로다. 彼輩들은 外面上으로 新學問이니 教育이니 흔는 語를 耳邊에 閃聞하고 舊學問 論駁이나 滋甚하니 惜哉라 彼輩여. 彼輩는 文明 教育界에 魔鬼라 稱함이 可하도다. (중략) 何故로 如此黯劣하야 學問이 何物인지 教育이 何物인지 獨立이 何物인지 自由가 何物인지 東西를 不分하면서 民智를 裨達하나 國權을 回復하냐고 攘臂大談하야 演說數句니 叫하면 能事로 自信하고 實地上 研究는 都無하니 엇지 可惜할 비 아니리오. (중략) 今番 京城에 來하야 各 演劇場에 觀光흔즉 各 學徒들이 三三五五히 作伴入來하논디 其中 女子에게만 秋波를 頻送하며 淫談悖說이 傍人의 耳朵를 打하니 如此하야 教育이 發達될가. 本港에도 演劇場이 非無이나 彼遊衣遊食 蕩客遊子 不學無識輩의 往來地에 不過하고 學徒에 至하야는 此等處에 足跡이 不至하거늘 第

一教育에 中心點되는 京城이 如此하니 엇지 痛哭處가 아니리오. 願컨디 學校學徒와 教育에 有志호신 君子는 有益호 新書籍을 晝夜募集호야 國民의 知識과 道德과 血性을 啓發振興케 홀지어다.²⁸⁾

인천에 사는 18세 여학생이었던 '농운낭자'는 외국 유학을 앞두고 '국處 學校를 次第로 閱訪'하기 위해 '京仁鐵道 第一番列車'를 타고 경성에 왔다. 그의 눈에 비친 첫 번째 대상은 '第一教育에 有志하다는 君子'였는데 '농운낭자'의 눈에 비친 그 교육자의 모습은 '단발한 머리에 진한 기름을 바르고' '맥모에 양혜, 세죽경'과 같은 근대 문물로 겹으로만 멋을 낸 모습이었다. 그는 이 교육자를 두고 '얼개화자인지 험잡인인지 타인효빈이나 하는 자인지' 알 수 없으면서 외면상으로만 근대 문물을 흉내 내는 일부 남성 지식인들의 허세와 허욕을 맹렬히 공격한다.

이어서 그는 근대 문물을 먼저 접한 남성들이 실질적인 개화의 방도를 연구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고, 명예욕에 들떠있는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민지를 발달한다 국권을 회복한다'면서 '팔을 벌리고 큰 목소리로 말하는(攘臂大談)' 남성 지식인에 대한 냉소적인 묘사는 결국 '實地上 研究는 都無'하다는 일침으로 끝난다. 경성 연극장에서 만난 남자 학도들의 모습 역시 농운낭자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女子에게 秋波를 頻送호며 淫談悖說로 傍人의 耳朵를 打'하는 그들을 보고 농운낭자는 '교육의 중심점 되는 경성이 여차하니 엇지 통곡처가 아니리오'라는 탄식을 남긴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 위계에 저항하는 언어를 가진다거나, 농운낭자와 같이 남성들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기 말에 대한 권위'가 모든 여성들에게 전반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여

28) 弄雲娘子, 「教育이 現今의 第一急務」, 『대한매일신보』, 1908.6.3

성들은 차별적인 성별 질서에 대해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재빨리 순치시키며 내적인 갈등 상태에 놓이곤 했다.

엇지하야 옛적 녀즈는 시디와 강역이 다름을 후세에 자탁하고 그리호얏든지 깊고 깊은 규문 속에서 봉제사접빈객으로 목적을 삼고 방적지봉과 제찬조반으로 주의를 삼아스니 형식상으로 볼진던 훌륭한 녀즈 사업이라 홀지로나 이것을 도리켜서 실질상으로 보건디 엇지 그 스업이나 완전히 달호얏노 천금갓흔 세월을 공연히 랑비호면서 문학이든지 기타 조흔 실업은 거연히 비척호얏스니 이는 곳 우리 녀즈계에 못된 독학을 양성호든 조짐이라 이 엇지 스스로 취호 화가 아니리오 이 일을 생각호건디 하늘이 주신 바도 아니오 남즈가 저희함도 아니오 다만 우리 녀즈가 즈포즈기함에 지나가지 못함이라²⁹⁾

‘장리의 청년녀즈는 낫낫치 문명 아니호 지 업’도록 ‘시기를 랑비하지’ 말고 여성의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차천경의 위 글은 그러한 내적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옛적 녀즈’의 삶이 ‘봉제사접빈객, 방적지봉, 제찬조반’ 등의 가사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형식상으로 볼진던 훌륭하나 실질상으로 보건디’ 그렇지 않다고 완곡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사실 그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문학이든지 기타 조흔 실업’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자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문학이든지 기타 조흔 실업’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차천경이 ‘스스로 취호 화’, ‘녀즈의 즈포즈기’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봉건적인 성별 역할구도에서 여성의 공적 활동이 제한되고 ‘문학’과 같은 상징 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문제삼으면서도, 그 이유를 남성중심적 질서 또는 구조의 문

29) 차천경, 「정업는것도저일월이오반가온것도저일월이라」, 『자선부인회잡지』 제1호, 1908.8.

제로 비판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4.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특징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고미숙에 따르면 근대계몽기의 수사는 그 자체가 '비시적'이며 '언어의 두께를 줄여 메마르게 구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⁰⁾ 그러나 근대계몽기의 여성독자투고와 여성 글쓰기는 그러한 근대계몽기 전반의 수사적 특징으로 지적되는 '건조함'보다 더 건조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여성들의 글쓰기는 전통적인 글쓰기의 보수성을 완고하게 지키고 있으며 대체로 딱딱하고 예의바르고 이성적이다. 정여울의 분석대로 『대한매일신보』의 일반독자투고가 '고발, 탄핵, 저주, 비속어와 욕설, 다채로운 방언과 은어가 동원되는 야생적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면³¹⁾, 여성독자투고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여성독자투고와 같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근대계몽기 전반의 공적 발화보다 더 딱딱하고 직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감상적이고 순진한 여성독자'에 대한 편견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여성 글쓰기'에 대한 편견, 즉 '지분기와 감상성'에 대한 자발적 검열, 혹은 의도적인 거부일 수 있다. 여성들의 발화는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만 자신의 발언에 대한 '공공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남붓그러라 아모것도 모로논 흐낫 녀인이 너무 아논체 흐야셔' 라든가 '아-그러나 니가 덜싱작흐고 말흐마디 잘 못흐얏지'³²⁾ 하는 '공적 발언'

30)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화사연구』 14집, 1999.

31) 정여울, 앞의 논문.

32) 최장조, 「자선부인의 담화」, 『자선부인회잡지』 제1호, 1908.8.

에 대한 자의식과 겸연은 그 당시 여성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느끼고 있었을 심리적 부담감을 잘 보여준다. 그러한 부담감을 상쇄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또한 ‘여성이 공적 발언을 한다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더욱 메마르고 직설적이며 이성적인 발화의 방식을 선택해야 했다. 그들은 여성이 ‘계몽된 국민 주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 혹은 ‘애국적인 민족 주체’로 발언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글쓰기는 이렇듯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근대 초 여성들의 공적 발화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듯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발언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기가 경험한 근대 체험과 근대적인 인식을 미미하게나마, 혹은 모순적인 것으로나마 조금씩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그 때 시작된 근대적인 여성 제도교육에 대해, 또 처음으로 그들 자신을 남자들과 동등한 ‘국민’으로 인식하게 된 사실에 대해, 전통적인 성별 위계의 불평등함에 대해,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망설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한 근대계몽기의 장문 여성투고문이 1908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 역시 1906년경 활발하게 이루어진 제2차 여학교 설립 운동과 1907년 국채보상을 위해 조직된 많은 부인회 설립의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여성들은 학교설립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집단적인 근대 체험을 통해 공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성들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했고, 여성 집단 및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여성들만의 단체 활동을 통해 경험한 집단적 자아 표출 경험은 보다 명료하게 개인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일에 대한 심리적 지지 체험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여성들의 목소리는 위기에 처한 민족적, 남성 중심적인

지배담론이 원하는 고정된 성 역할, 또는 민족적 정체성의 담지자인 순종적인 조선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상에서 비껴나 있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근대를 경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성들의 글쓰기는 지배담론에 포획되지 않고 여성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즉 미약하게나마 이들이 여성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女子指南』, 1908.4.

『西友』 9호, 1907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韓國女性關係資料集』, 近代篇(下), 이대출판부, 1980. 1~540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韓國女性關係資料集 - 韓末女性誌』, 이대출판부, 1981. 1~300면.

이화형 외,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여성지 총목차』 9권, 국학자료원, 2004. 1~283면.

『자선부인회잡지』, 1908.8.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95면. 1~184면.

고미숙,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화사연구』 14집, 1999. 105~132면.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9. 1~380면.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84. 1~241면.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2004. 67~98면.

이광린, 「『대한매일신보』 간행에 대한 일고찰」, 『대한매일신보연구』, 서강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논집 제16집, 서강대출판부, 1986. 1~219면.

이형태, 「근대계몽기 시가와 여성담론-신문매체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

가연구』 10집, 2001. 277~301면.
정여울, 「개화기 신문 독자투고란 연구」, 『문학사상』 제34권 제7호, 통권 933호,
2005. 7. 178~185면.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4. 1~563면.
최기숙, 「교육 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호, 2004.
95~130면.
최기영, 『대한제국기의 신문 연구』, 일조각, 1991. 1~308면.

K C I

ABSTRACT

The Aspects of Women Readers Contributions and Formation Processes of 'Woman-Subjectivity' in The Enlightenment Era

Hong, In-Sook

Women readers in late Chosun Dynasty were a major class enjoying novels that were regarded as a wild and sentimental. From modern enlightenment of 1900s, however, some women readers started to read not only novels but also newspapers that were transmitting useful knowledge. They acquired modern knowledge via newspapers and started to express their opinion and position about modernity from their own experience via readers contributions.

Women readers contributions in modern enlightenment times were printed on newspapers such as 『Empire Newspaper(帝國新聞)』, 『Daehan Daily Newspaper(大韓每日申報)』, etc. and women magazines such as 『Yeojajinam(女子指南)』 『Charity Women's Magazine(자선부인회잡지)』, etc. The contents can be roughly divided in two parts. The first is about the meaning of modern education for women and the second is about traditional sexual discrimination. The women readers contributions that contained the two subjects had common characteristics. While it showed resistive languages against ruling discussion, it showed obeying ones complying with ruling discussion.

The reason why these contradictory language descriptions were shown at the same time is that women's speaking just began to appear in the society. The process started to enable women to form themselves as a woman-subjectivity. Women readers contributions in modern enlightenment times are important and meaningful data that have shown the process, "women's writing".

Key Words The Enlightenment Era, women's writing, woman-subjectivity, modern education for women, sexual hierarchy, resistive language, obeying language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

K C I